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8월 19일(수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도로관리과	담당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남궁부, 주무관 정규효 • ☎ (044) 201-3915, 3916	
	한국건설 기술연구원	담당자	• 수석연구원 이문섭, 신성필 / 전임연구원 김연태 • ☎ (031) 910-0690, 0532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0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장마 후 도로파임(포트홀) 집중보수 실시,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.

- 스마트 앱으로 작업일지·통계관리,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-

- “도로위의 지뢰”인 도로파임(포트홀)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,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.
-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‘도로파임 집중 순찰·관리기간’으로 지정하여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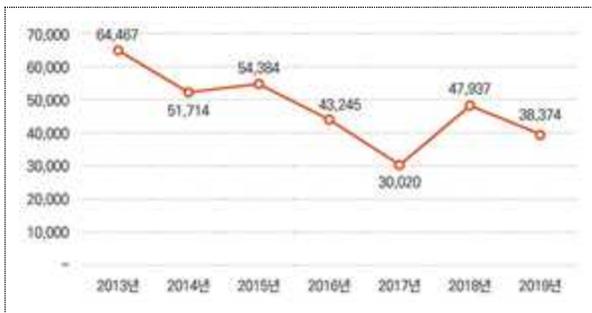
< 장마 이후 발생한 도로파임 사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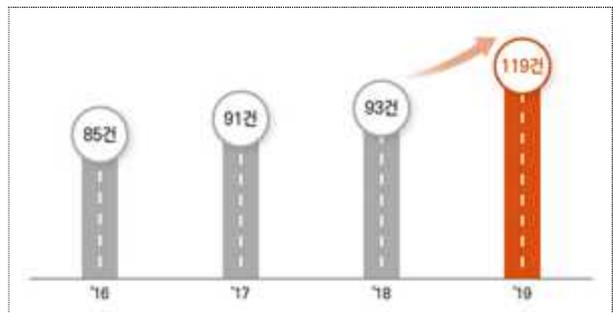
<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>

- 아울러,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.

- 이를 위해,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, 발생 통계 디지털화(DB 구축),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.
 - 또한,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 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하였다.
-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,
-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,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.



<일반국도 도로파임 발생 건수>



< 도로파임 피해 소송건수 >

- 이에 따라,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한승헌), 서울시,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'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' 방안과 '보수관리 매뉴얼'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 도로파임 작업관리 앱 >



< AI활용 도로파임 자동탐지 >

- ①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,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, 빈발 추적지도(통계) 구축
 - ②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,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
 - ③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
-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“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,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남궁부 사무관(044-201-39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